

iM Weekly Credit

금리 상승폭 고려 시 스프레드 확대폭은 적정 수준

Credit Brief

[크레딧] 이승재 2122-9143 lsj7845@imfnsec.com

Check Point

1. 최종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국고 3년 기준 인상 우려감에 따른 추가 상방압력은 제한적 수준
2.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은 25년 저점 이후 큰 폭 확대되었으나, 국고 금리가 설명하는 변수로 따지면 스프레드 확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확대
3. 스프레드에서의 평균 회귀 기간은 긴 편이나, 금리를 고려한 부분에서의 회귀 기간은 짧은 편. 현 상황에서는 적정 레벨로 돌아오는 기간이 빠른 공사+은행채 투자 선호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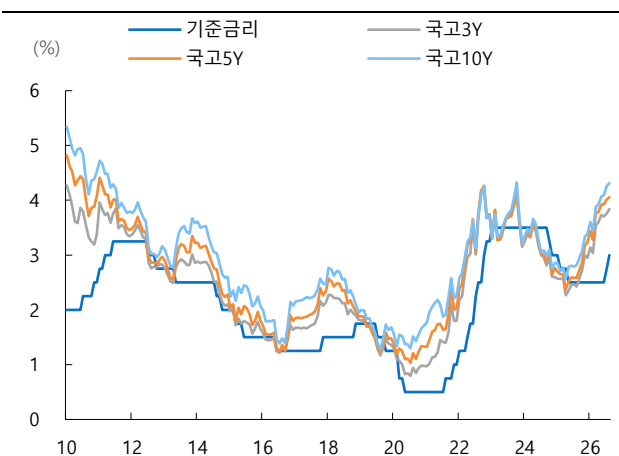
최종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국고 3년 기준 인상 우려감에 따른 추가 상방압력은 제한적 수준

국고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선반영하며 선제 상승하는 경향이 컸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①2010~11년, ②17~18년, ③21~23년, ④현재(2.50 → 3.00, 현재 진행중)으로 나누어봤을 시 모든 사이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이클은 25년 2분기 기점부터 국고금리가 선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국고3년 기준 저점대비 현재까지의 상승폭은 약 171bp 수준이다. 8월 금통위에서의 백투백 인상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와 국고3년간 갭, 즉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83bp 수준에 달한다.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기준금리의 인상 기간과 폭이 가장 길었던 21~23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상승폭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별 국고3년의 경로를 따져봤을 시 마지막 금리인상일보다 선행하여 고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전 3차례 인상 사이클 모두에서 나타났다. 21~23년 사이클 시 마지막 인상 -60영업일 전 국고3년은 고점을 형성했고 완만하게 하락했다. 이전 사이클에서도 -100~-60영업일 수준에서 모두 국고3년 금리는 고점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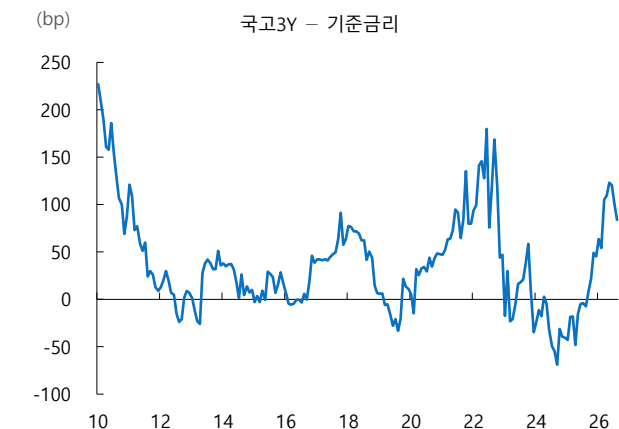
이번 사이클은 Terminal Rate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8월 Back-to-Back 인상 이후 신현송 총재는 선제적 대응에 따른 효과를 점검해나가겠다고 제시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8월 소비자물가 헤드라인 YoY +3.1%, 근원 +3.4%, 생활물가 +3.2%) 수준과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에 최종금리 상단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인상 사이클 대비 과도했던 국고3년의 인상 선반영을 대입한다면 단기구간의 큰 폭의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림1. 국고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며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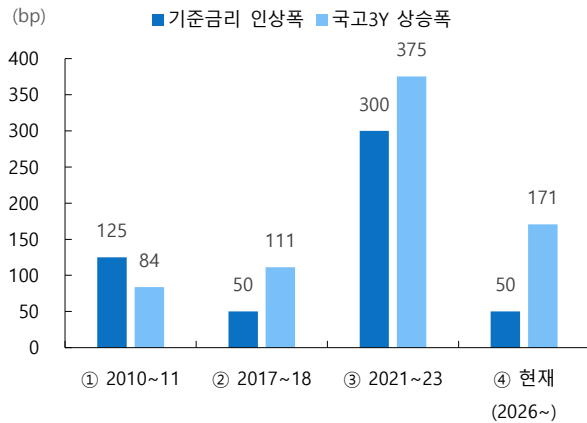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이미 25년부터 국고금리에 대한 선반영이 높은 상황. 현재에도 기준금리 대비 80bp 이상 갭이 높아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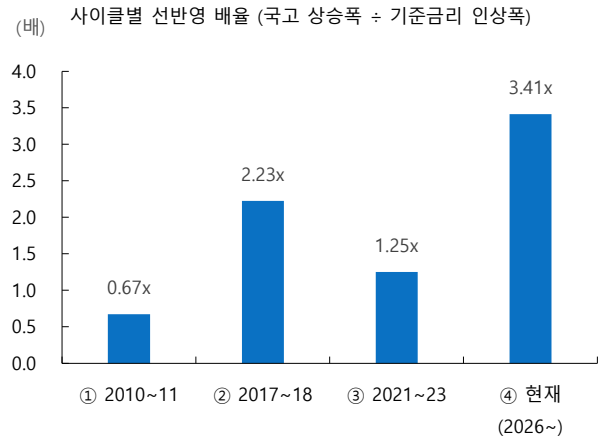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저점대비 국고금리 상승폭이 현재 사이클에서 가장 큰 편이나 추가 인상을 고려하면 이전 인상 사이클과 비슷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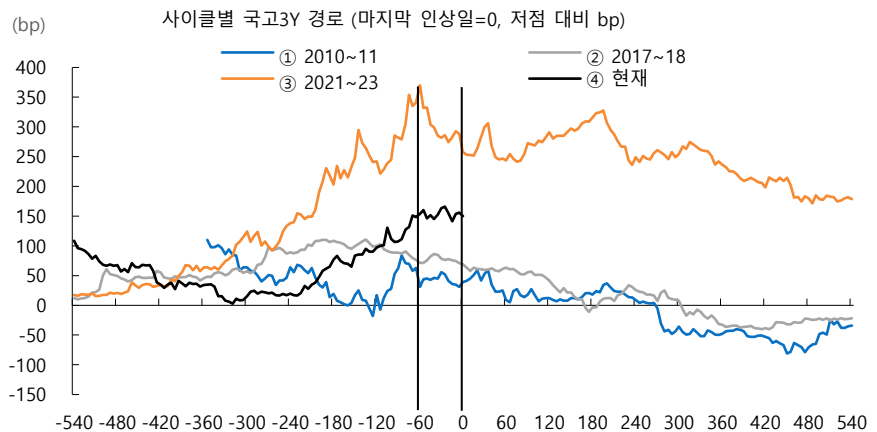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선반영 수준도 17~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사이클별 국고3년 경로. 마지막 인상일 이전 -60거래일 수준에서 고점이 형성되는 경향. 10~11, 17~18년 인상 사이클과 비교할 시 현재 저점 대비 국고금리 상승폭은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 추가 상방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1: x축은 마지막 인상일=0, 영업일 기준

주2: 현재 사이클은 26년 8월 인상일을 0으로 설정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은 25년 저점 이후 큰 폭 확대되었으나, 국고 금리가 설명하는 변수로 따지면 스프레드 확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확대

통상적으로 금리의 상승과 하락은 크레딧 스프레드의 움직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특히 개별 신용위험이 적은 공사채와 은행채 등 초우량물의 경우 금리 상승 요인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선형회귀분석에 따라 금리 변동에 따른 스프레드 기울기, 절편, 그리고 잔차로 나누어보았다. 크레딧 이벤트 및 고금리 시 스프레드 산포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정확한 적정 스프레드 레벨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대략적으로 기울기와 잔차를 통해 스프레드 확대를 크게 금리 변동 요인과 이외 크레딧 요인(수급 스트레스, 크레딧 이벤트 발생 등)으로 대략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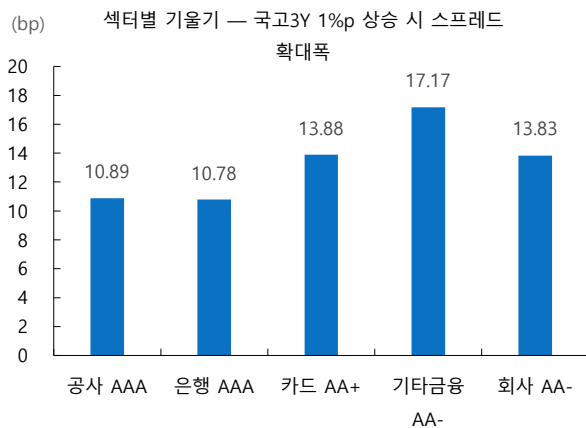
현재 인상 사이클에서는 스프레드 저점대비 확대폭을 분해할 시 공사채는 오히려 금리로 설명되지 않는, 수급과 크레딧 리스크를 순수하게 반영하는 잔차 (-) 스프레드를 형성하고, 은행채 또한 대부분이 금리 상승에 따른 요인이 지배한다. 카드채, 캐피탈채, 회사채로 갈수록 잔차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

10년~현재까지의 금리 및 스프레드 시계열에서 국고 금리가 1%p 상승할 시 스프레드 확대 폭은 공사채가 +10.89bp, 은행채가 +10.78bp 수준이고, 캐피탈 AA- 3년물이 +17.17bp로 가장 컸다. 이는 1) 등급간 신용 프리미엄 자체가 미치는 요인이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2)금리 상승이 차입부담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여전채의 경우 수급에 가장 민감한 섹터이므로, 금리 변동성이 잦아지면서 레벨도 상승할 시 매도압력이 강화되면서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초우량물로 갈수록 현재 사이클에서 금리 상승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실제 금리 상승 기여분을 제외한 일종의 크레딧 위험인 잔차 스프레드의 경우 마이너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스프레드 레벨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기 보다는 금리 상승에 맞추어 움직였다는 점이며, 상대적으로 적정 레벨 대비 강세 구간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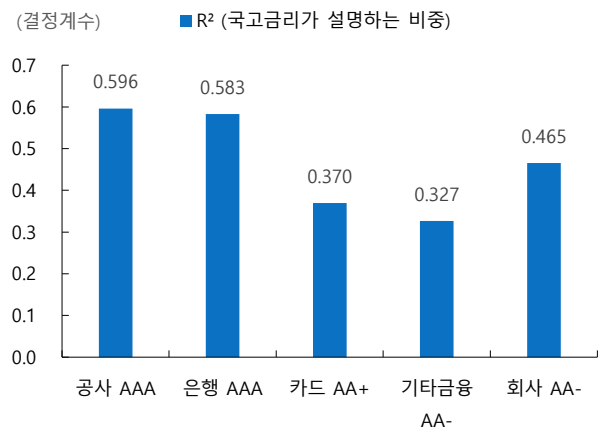
한편으로 잔차가 $-1\sigma \sim +1\sigma$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장기 시계열에서 일반적이다(이론적으로는 잔차가 0에 수렴하나, 신용채권 특성상 잔차는 크레딧 이벤트(COVID-19,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사태 등) 제외 시 제한된 구간에서 움직임). 0보다 하회한다는 것은 신용 스트레스가 낮고 크레딧 스프레드 매력력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 σ 보다 높아지면 저평가로 스프레드 매력은 높아지지만 신용 스트레스 발생 징후로 포착 가능하다. 특히 은행채 등 초우량물 부분에서까지 잔차가 일정 표준편차 이상으로 상승했을 시 스트레스 징후가 포착된다. 이에 잔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격 수준 및 크레딧 채권 내 스트레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림6. 국고금리 1%p 상승시 스프레드 확대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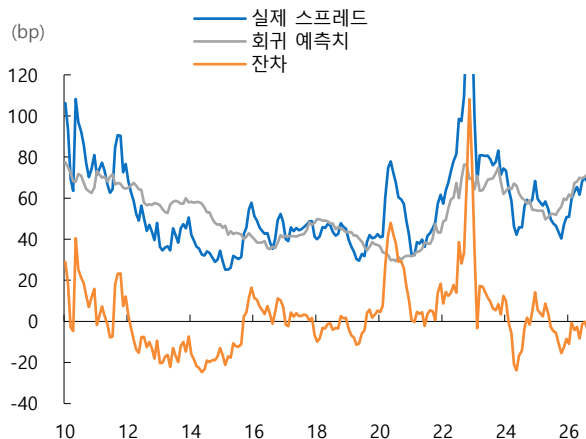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초우량물로 갈수록 국고금리가 스프레드 변동을 설명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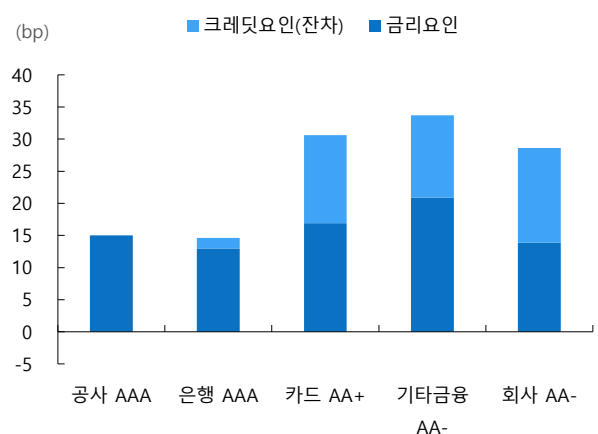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국고금리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기율기)를 반영한 예측치 대비 금리 변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는 마이너스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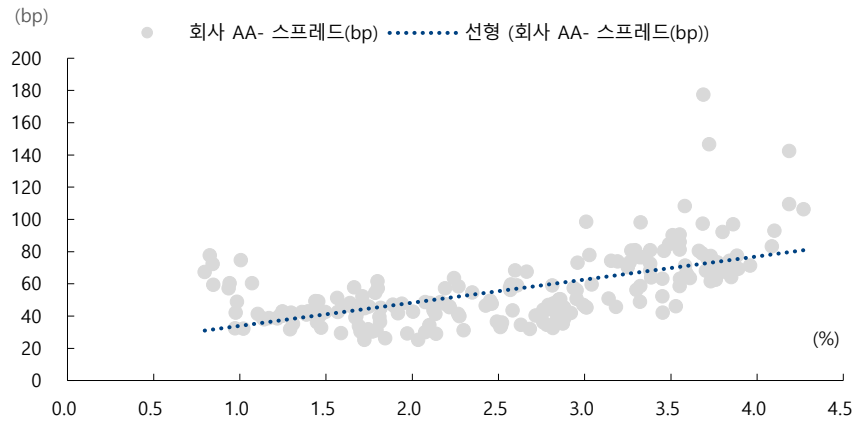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초우량→우량물로 갈수록 저점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을 분해할 시 잔차가 설명하는 요인이 커짐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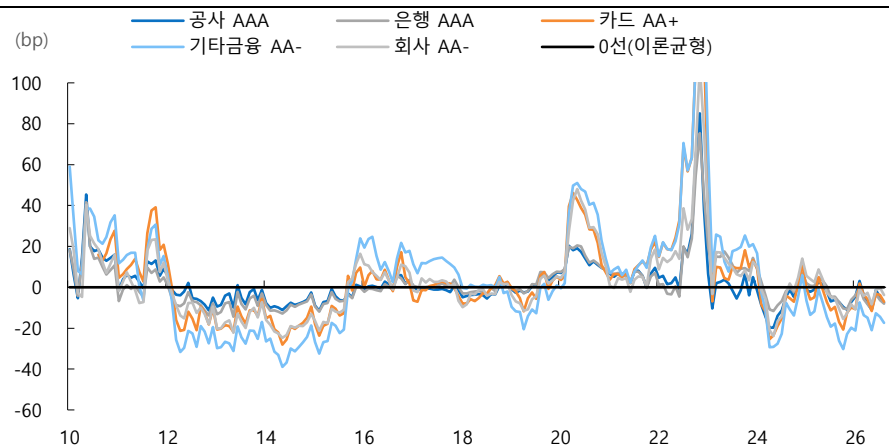
그림10. 국고 3년 금리 및 회사채 AA- 3년물 간 선형관계(선형회귀분석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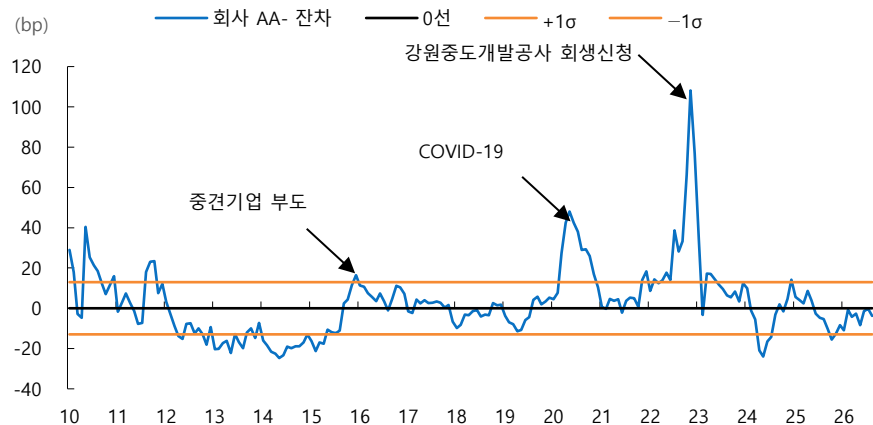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표본기간은 월별로 2010.01~2026.08 현재

그림11. 모든 섹터에서 금리 요인을 제거한 크레딧 부분에서의 스프레드 변동(잔차)은 마이너스 형성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잔차가 $-1\sigma \sim +1\sigma$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0보다 하회한다는 것은 신용 스트레스가 낮고 크레딧 스프레드 매력이 낮다는 점, $+1\sigma$ 보다 높아지면 신용 스트레스 발생 징후로 포착 가능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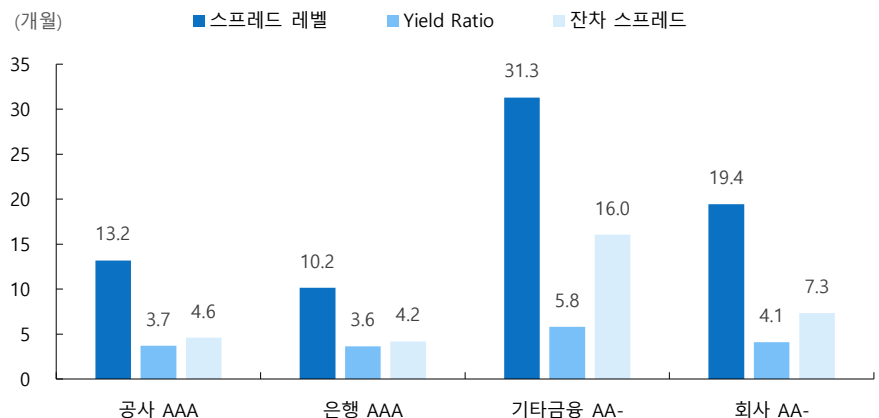
스프레드에서의 평균 회귀 기간은 긴 편이나, 금리를 고려한 부분에서의 회귀 기간은 짧은 편. 현 상황에서는 적정 레벨로 돌아오는 기간이 빠른 공사+은행채 투자 선호도 증가

위에서 분석한 국고 금리(3년 기준)의 움직임(기울기)에 따른 스프레드 변동폭을 대입하고, 잔차의 회귀성을 고려할 시, 회사채 AA- 3년물 기준으로 국고 3년 3.878%(9/1 증가) 수준에서의 적정 스프레드는 71bp 수준이 산출된다. 현재 회사채 AA- 3년물 스프레드는 67.7bp이므로 가격만 놓고 보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분석은 가격지표만으로 이루어졌기에, 개별기업의 신용 이벤트나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는 반영하지 못했다. 스프레드 레벨의 평균 회귀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3~31개월로 상당히 변동폭이 높은 수준이나, Yield Ratio나 잔차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회귀 기간이 짧은 편이다. 특히 Yield Ratio의 경우에는 금리 0.5%에서의 크레딧 스프레드 50bp가 차지하는 비중과 3.8%에서 50bp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고금리가 하락하는데 스프레드가 축소되지 않으면 국고 대비 상대가치가 악화된다. 현재의 Yield Ratio는 장기 평균으로 보았을 시 Z-Score 기준 -0.37~-0.50 수준에 위치해 있어 장기평균보다 강세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 인상 사이클이 끝나기 전 국고금리가 랠리를 진행할 시 Yield Ratio의 정상화 압력이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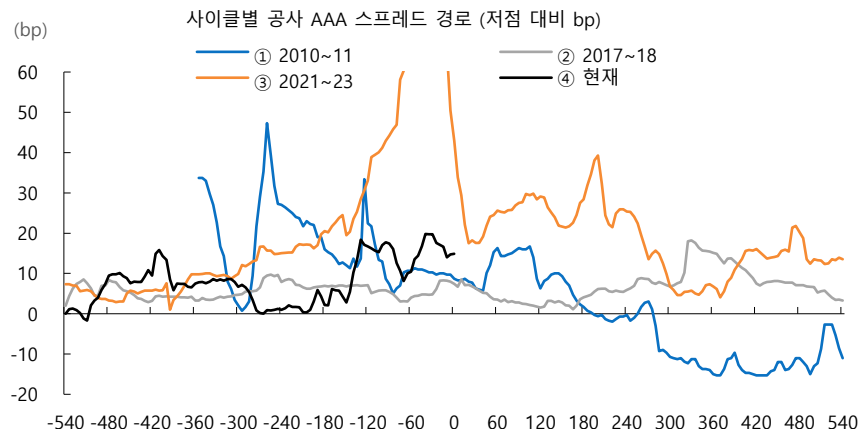
현재 사이클에서의 스프레드 변동은 이전 사이클과 대비해서 적정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현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수급간 불균형 등을 고려할 시 금리 상승과 추가 스프레드 확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기 전략에서는 스프레드 추가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공사+은행채(초우량물) 편입이 유리하다. 향후 금리 하락 베팅 시에도 초우량물 부분이 평균 회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스프레드 정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림13. 크레딧 이벤트를 타지 않고 적정 레벨 구간(평균 회귀 수준)에 수렴하는 기간이 짧은 초우량물 선호도가 당분간 높아질 것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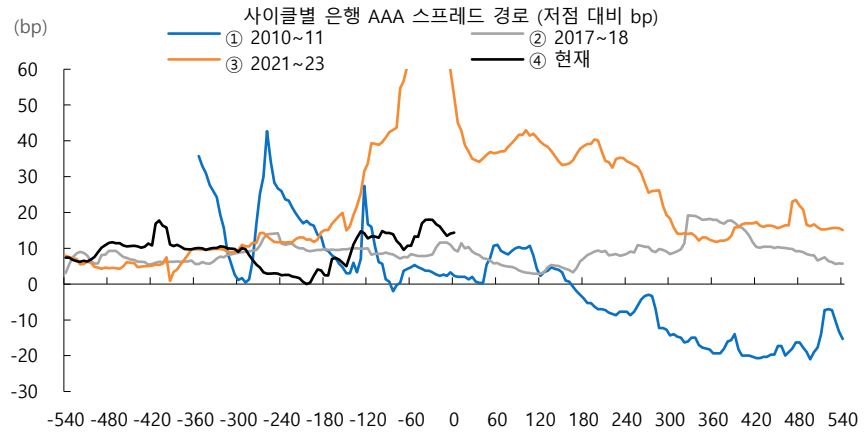
그림14. 사이클별 공사 AAA 3년물 스프레드 경로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x축은 기준금리 마지막 인상일 = 0, 영업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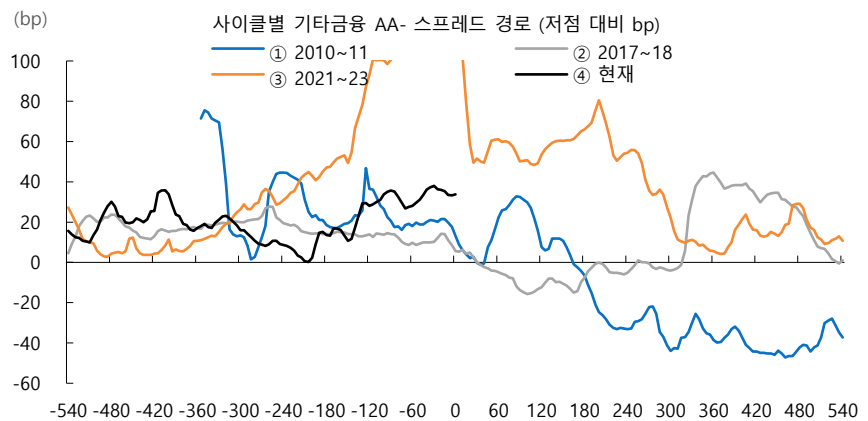
그림15. 사이클별 은행 AAA 3년물 스프레드 경로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x축은 기준금리 마지막 인상일 = 0, 영업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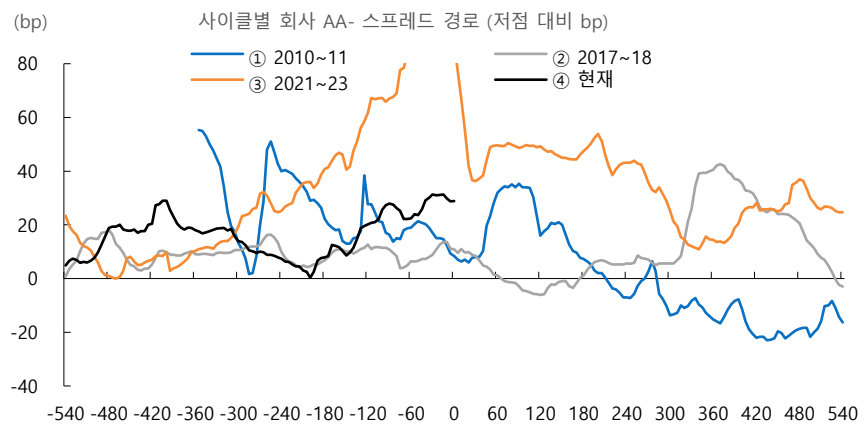
그림16. 사이클별 캐피탈 AA- 3년물 스프레드 경로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x축은 기준금리 마지막 인상일 = 0, 영업일 기준

그림17. 사이클별 회사 AA- 3년물 스프레드 경로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x축은 기준금리 마지막 인상일 = 0, 영업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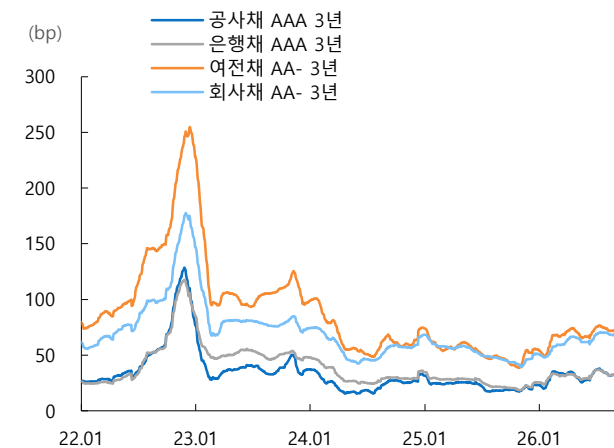
표1. 주요 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구분		금리					신용스프레드					금리 변동(1W, bp)					신용스프레드 변동(1W, bp)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국고채		3.45	3.80	4.02	4.16	4.29	-	-	-	-	-	3.3	-6.0	-8.5	-8.3	-8.4	-	-	-	-	-
공사채	AAA	3.74	4.12	4.31	4.37	4.47	48.0	32.3	29.2	21.1	17.9	0.9	-5.8	-7.8	-8.3	-8.6	1.9	0.2	0.7	0.0	-0.2
은행채	AAA	3.76	4.12	4.35	4.45	4.71	50.6	32.8	33.0	28.3	42.5	2.1	-5.7	-8.2	-8.3	-8.4	3.1	0.3	0.3	0.0	0.0
여전채	AA+	3.92	4.36	4.44	4.72	5.65	66.6	56.9	42.0	55.9	136.3	0.5	-5.5	-8.6	-8.3	-8.4	1.5	0.5	-0.1	0.0	0.0
	AA0	3.94	4.43	4.62	4.95	5.82	68.3	63.5	59.6	78.5	153.6	0.3	-5.5	-8.6	-8.3	-8.4	1.3	0.5	-0.1	0.0	0.0
	AA-	4.00	4.52	4.71	5.16	6.05	74.6	72.1	68.7	99.3	176.1	0.4	-5.6	-8.7	-8.4	-8.4	1.4	0.4	-0.2	-0.1	0.0
	A+	4.36	5.30	5.84	6.06	6.74	110.2	150.5	182.0	189.2	245.8	0.6	-5.6	-8.7	-8.4	-8.4	1.6	0.4	-0.2	-0.1	0.0
	A0	5.03	6.07	6.50	6.58	7.17	177.5	227.8	248.2	241.9	287.9	0.7	-5.6	-8.6	-8.4	-8.4	1.7	0.4	-0.1	-0.1	0.0
	A-	5.59	6.72	7.15	7.23	7.81	233.1	292.0	313.1	306.6	352.4	0.6	-5.6	-8.6	-8.4	-8.4	1.6	0.4	-0.1	-0.1	0.0
회사채	AAA	3.85	4.29	4.40	4.49	4.78	59.4	49.1	37.5	32.2	49.1	1.4	-6.2	-8.5	-8.3	-8.4	2.4	-0.2	0.0	0.0	0.0
	AA+	3.95	4.38	4.49	4.59	5.06	69.0	58.9	46.8	42.4	77.6	1.5	-5.9	-8.5	-8.4	-8.4	2.5	0.1	0.0	-0.1	0.0
	AA0	3.98	4.42	4.56	4.69	5.40	72.6	62.7	53.4	52.2	111.2	1.4	-5.8	-8.5	-8.3	-8.4	2.4	0.2	0.0	0.0	0.0
	AA-	4.02	4.48	4.66	4.88	5.76	76.2	68.1	63.7	71.9	147.8	1.5	-5.9	-8.5	-8.3	-8.4	2.5	0.1	0.0	0.0	0.0
	A+	4.16	4.86	5.33	5.55	6.35	90.4	106.6	130.3	138.8	206.0	1.4	-6.1	-8.5	-8.4	-8.4	2.4	-0.1	0.0	-0.1	0.0
	A0	4.32	5.13	5.77	6.01	6.81	106.1	133.8	174.7	184.7	252.1	1.3	-6.1	-8.5	-8.4	-8.4	2.3	-0.1	0.0	-0.1	0.0
	A-	4.59	5.59	6.36	6.54	7.32	133.1	179.4	233.8	237.7	303.5	1.3	-6.1	-8.5	-8.3	-8.4	2.3	-0.1	0.0	0.0	0.0
	BBB+	5.65	7.86	8.24	8.34	8.81	239.4	406.0	421.8	417.8	452.5	1.4	-6.2	-8.5	-8.3	-8.4	2.4	-0.2	0.0	0.0	0.0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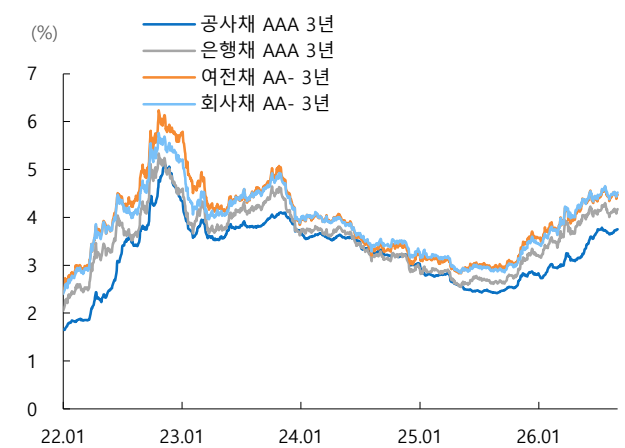
주: 민평4사 평균, 1년물은 동안채 대비 스프레드, 8/28 기준

그림18. 주요 채권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주요 채권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표2. 주간 주요 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수요예측)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예정액 (억원)	유효수요액 (억원)	만기 (년)	유효경쟁률 (:1)	금리밴드(bp, %)			낙찰금리 (%p, bp)
							기준	하단	상단	
이랜드월드111	BBB	2026-08-27	200	180	1	0.9	개별민평	-0.3	0.3	0.3
롯데건설156-1	A	2026-08-26	300	910	1	3.0	개별민평	-0.3	0.3	0.3
롯데건설156-2	A	2026-08-26	200	600	1.5	3.0	개별민평	-0.3	0.3	0

자료: 인포맥스,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4~8/28 기준

표3. 주간 기업 신용등급/전망 변동 현황 (0건/3건)

회사명	평가사	등급변동	적용등급			변동요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SK에너지	KIS	상향검토	BBB0/S	BBB/↑	8/27	SK가스의 동사 흡수합병 공시에 따른 신용도 감안
SK아이이테크놀로지	KR	상향검토	A-/N	A-/↑	8/26	모회사 SK이노베이션으로의 흡수합병 및 신용도 감안
에코프로	NICE	전망하향	A-/S	A-/N	8/25	투자 및 자회사 출자 계획 감안 시 지주사 자체적 차입부담 상승으로 구조적 후순위성 높아질 전망

자료: 신용평가 3사,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BBB+급 이상 무보증 회사채만 기재, 8/24~8/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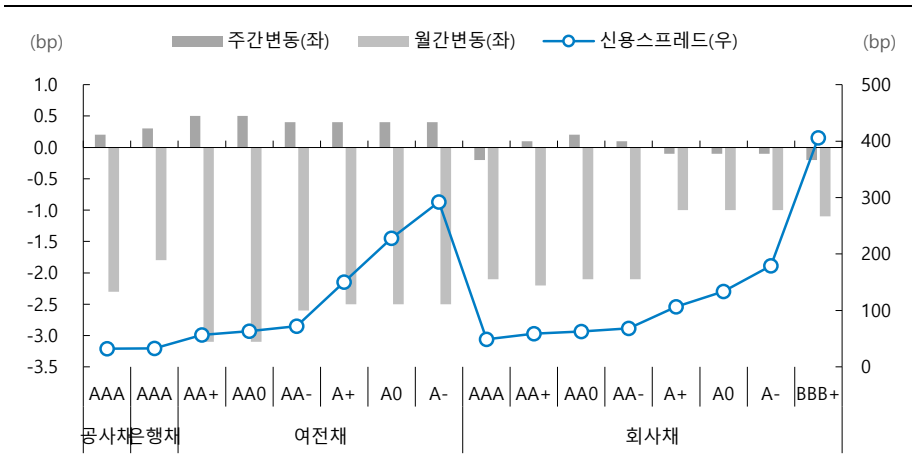
표4. 주간 공사/공단채 발행 현황

종목명	표준코드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액 (억)	만기 (년)	확정금리 (%)	발행사민평대비 (bp)
주택금융공사299(사)	KR354423GG82	AAA	2026-08-28	2,000	3	4.06	3.2
자산관리공사채165회(사)	KR352504GG88	AAA	2026-08-27	400	2	3.942	2
자산관리공사채166회(사)	KR352505GG87	AAA	2026-08-27	1,200	3	4.103	1
주택금융공사298(사)	KR354422GG83	AAA	2026-08-27	2,400	3	4.092	0
한국전력1611	KR350106GG84	AAA	2026-08-26	200	2	4.040	2.5
한국전력1612	KR350107GG83	AAA	2026-08-26	1,200	3	4.240	3.4
한국전력1613	KR350108GG82	AAA	2026-08-26	3,000	5	4.43	3.5
한국장학재단26-26(사)	KR356004GG84	정부보증	2026-08-26	700	5	4.276	0
토지주택채권630	KR356109GG88	AAA	2026-08-26	1,000	50	4.863	0
광해광업공단29	KR356401GG83	AAA	2026-08-26	700	3	4.196	1
하남도시공사2026-04	KR357601GG89	AA0	2026-08-26	300	1	3.928	2.9
도로공사1017	KR350703GG81	AAA	2026-08-25	500	7	4.363	-4.3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950(사)	KR351601GG82	AAA	2026-08-25	1,300	5	4.3	0.1
토지주택채권629	KR356108GG89	AAA	2026-08-25	1,500	4	4.23	-0.5
고양도시관리공사2026-02	KR357201GG83	AA0	2026-08-25	300	2	4.283	5.5
토지주택채권628	KR356107GG80	AAA	2026-08-24	2,500	5	4.392	0.5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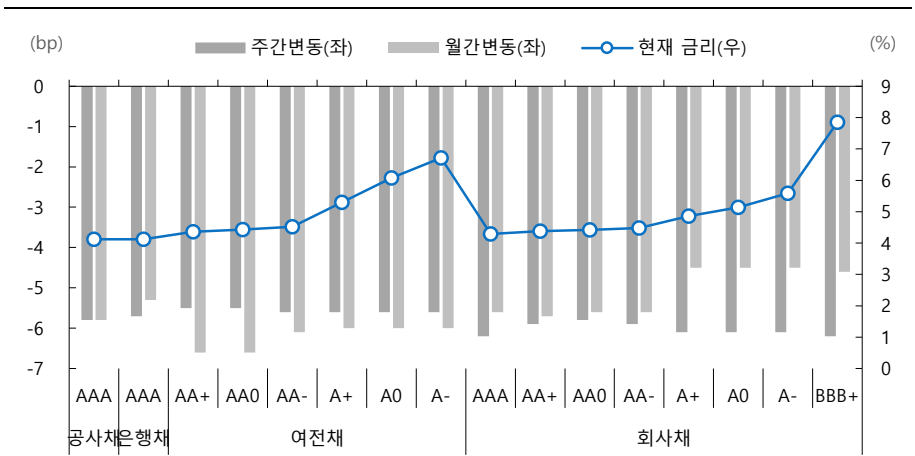
주: 8/24~8/28 기준

그림20. 주요 채권 스프레드 변동(3년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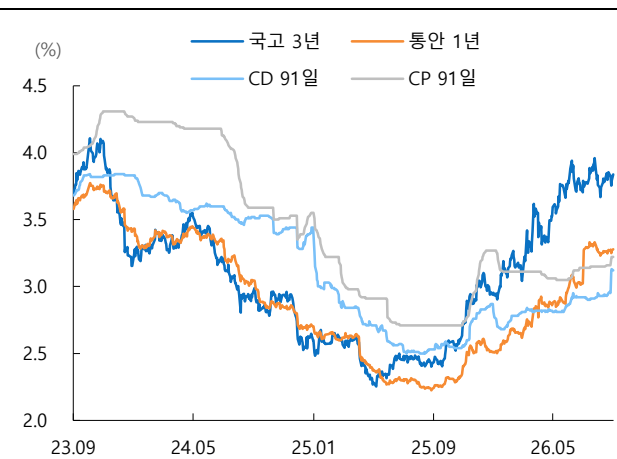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8 기준

그림21. 주요 채권 금리 변동(3년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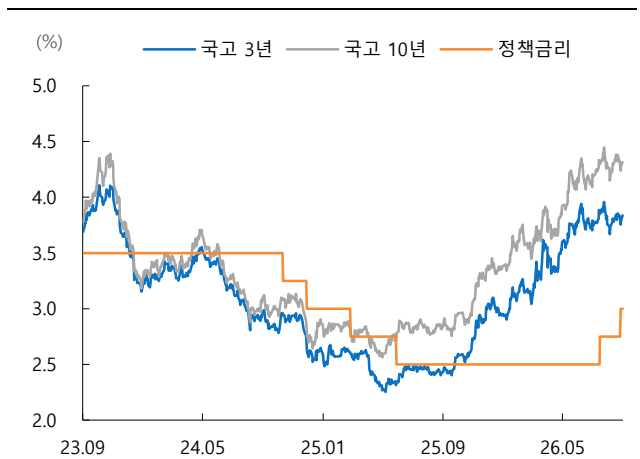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8 기준

그림22. 주요 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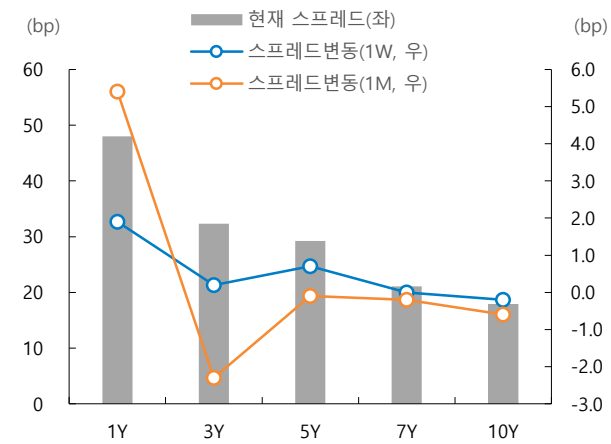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3. 국고채 및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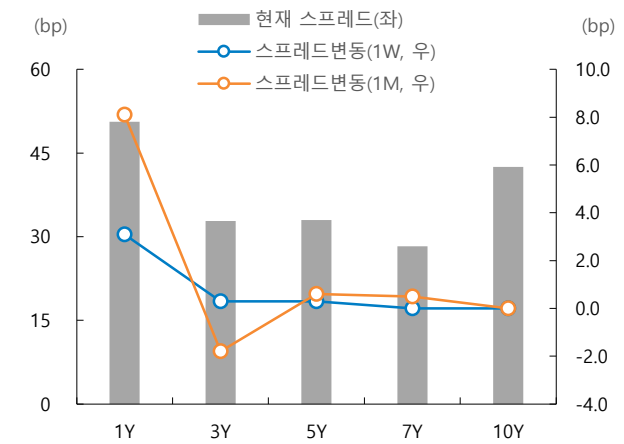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4. 공사채 A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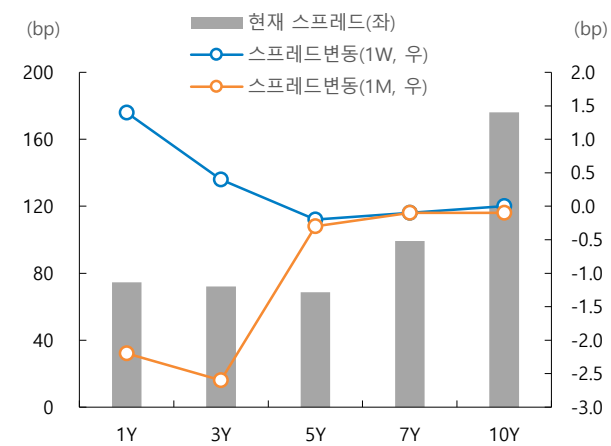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8 기준

그림25. 은행채 A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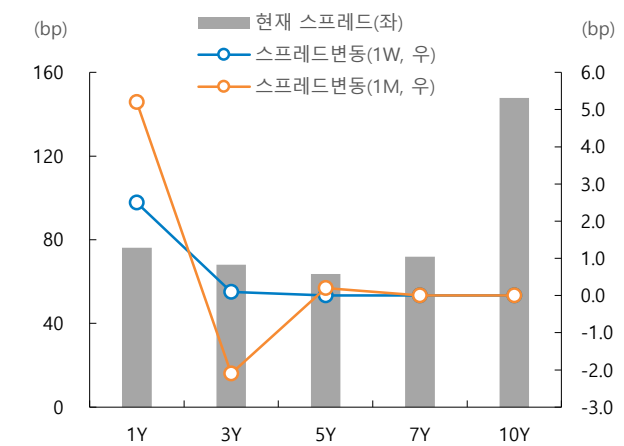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8 기준

그림26. 여전채 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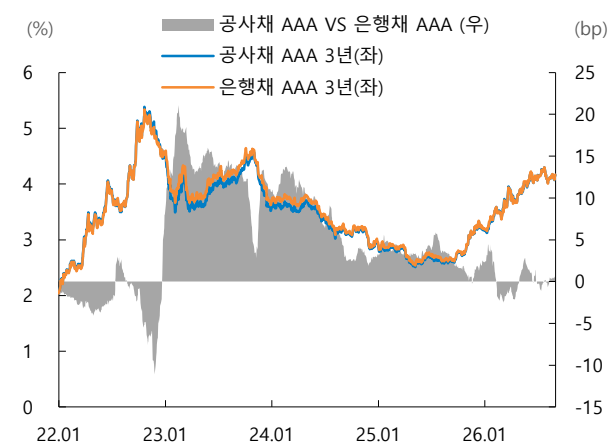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8 기준

그림27. 회사채 AA- 등급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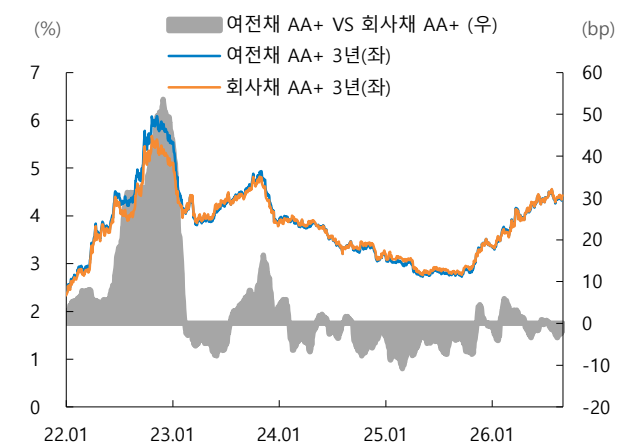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8/28 기준

그림28. A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공사채 VS 은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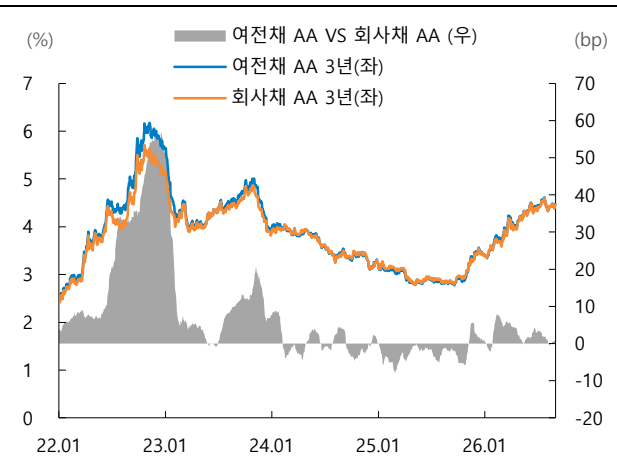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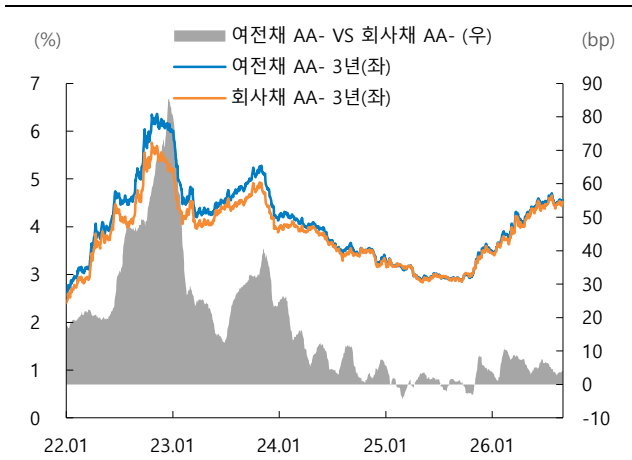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0. 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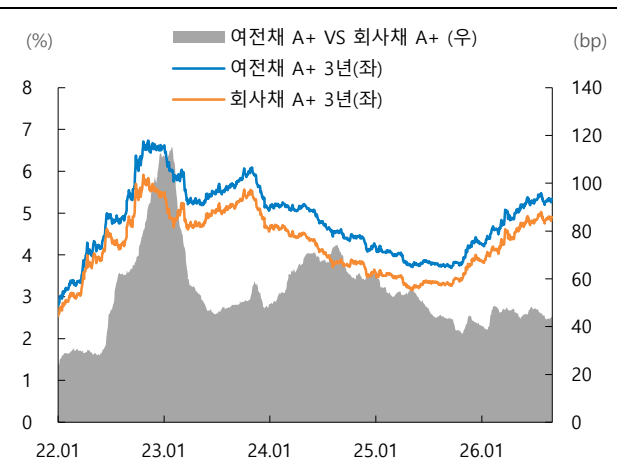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1. A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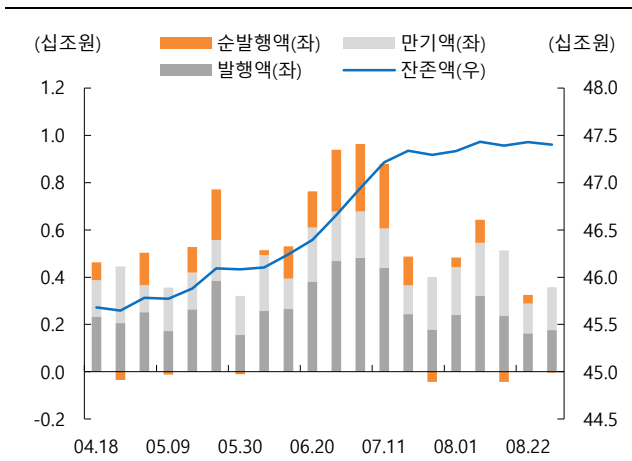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2. A+ 등급간 스프레드 변동(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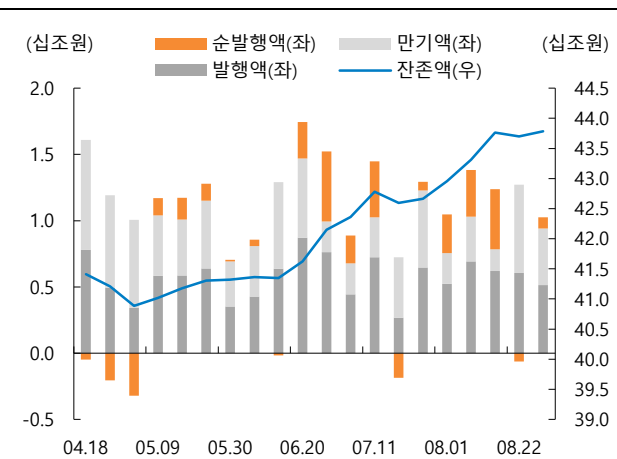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3. 공사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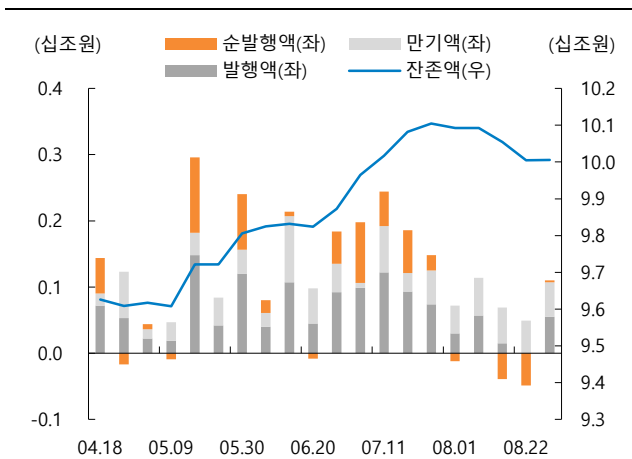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4. 은행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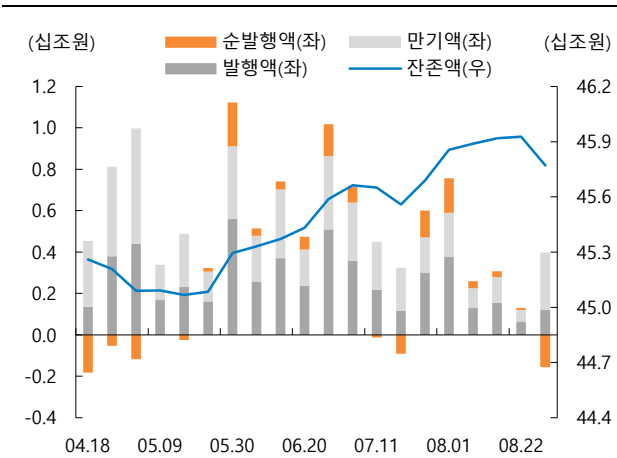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5. 여전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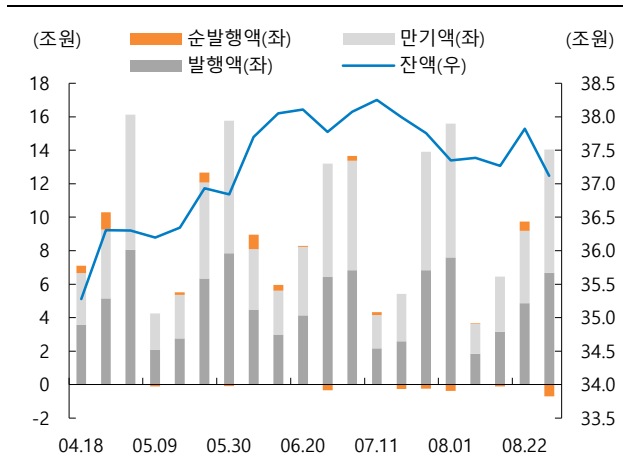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6. 회사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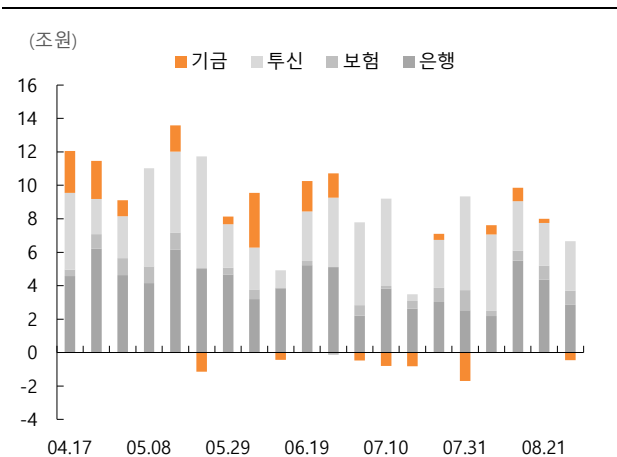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7. PF - CP/전단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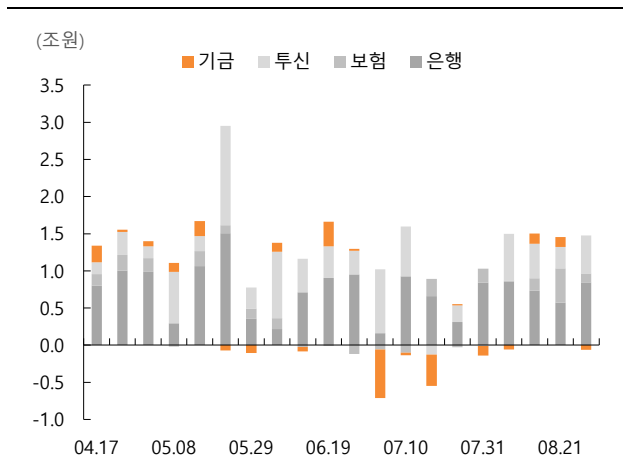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8. 전체 채권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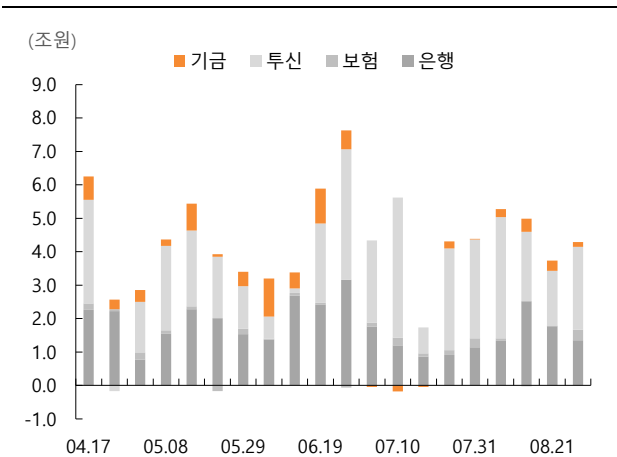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9. 특수채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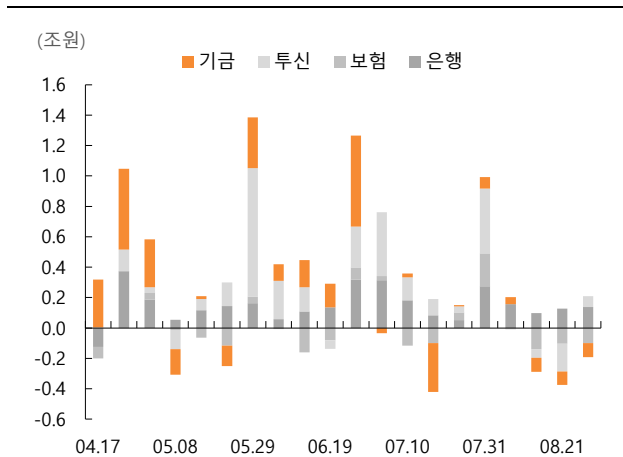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0. 금융채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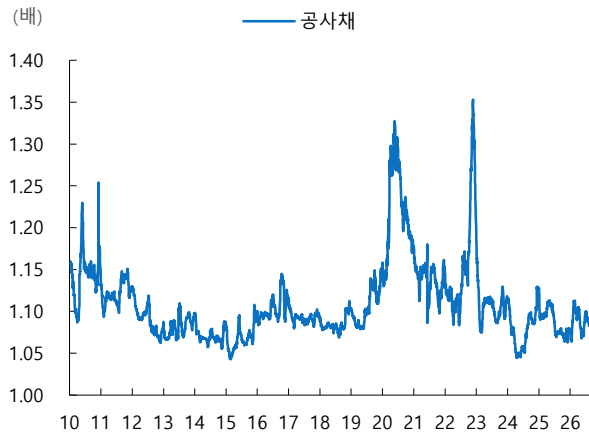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1. 회사채 순매수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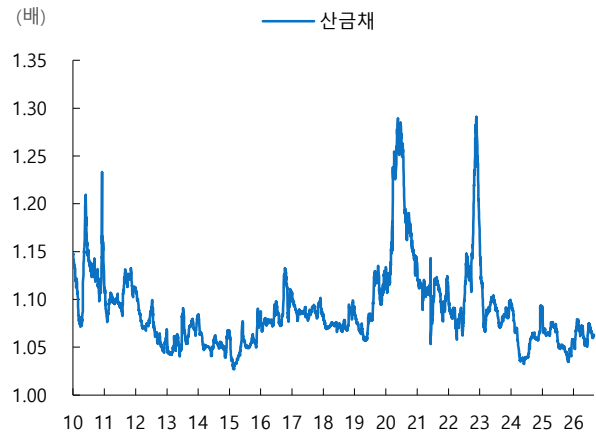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2. 공사채 Yield Ratio 추이(AAA 3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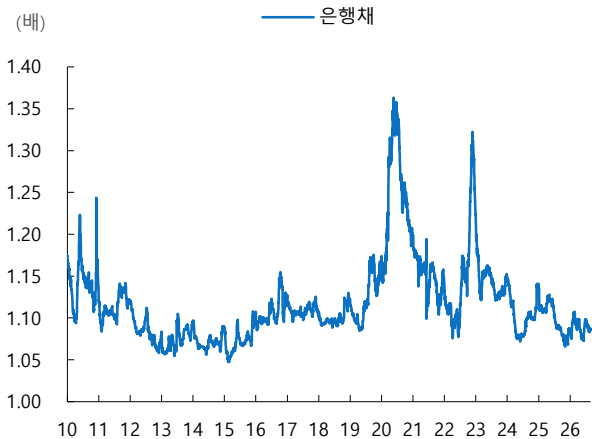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3. 산금채 Yield Ratio 추이(A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4. 은행채 Yield Ratio 추이(A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5. 카드채 Yield Ratio 추이(AA- 3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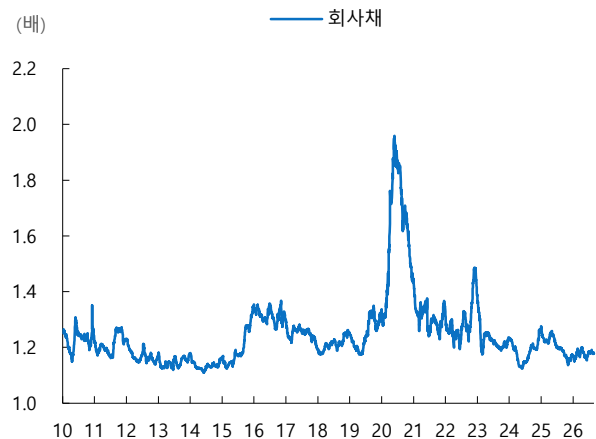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6. 캐피탈채 Yield Ratio 추이(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7. 회사채 Yield Ratio 추이(AA- 3년물)



자료: 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승재)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